

지역별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지원

농진청,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가시적 성과 도내에서는 군산·고창·장수 등서 추진 중 새로운 가공상품 개발·생산으로 평균 매출액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6일 과잉생산과 매출감소로 성장이 둔화된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이하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지역특화작목법'에 근거, 지방농촌진흥기관이 특화작목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군산, 고창, 장수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사업 추진 첫 해에 참여한 군산·고창, 전남 장성, 강원 홍천, 충북 충주의 경영체는 새로운 가공상품 개발과 생산, 판매로 평균 매출액이 42.1%나 증가했다.

지역별 대표적 가공상품은 △군산(수제맥주, 빵, 리면류) △고창(청보리면, 전빵 등) △강원 홍천(육수스낵, 치마, 감양갱) △충북 청주(사과, 딸기, 파이 등 디저트류) 등이다. 올해는

경기 이천, 전남 영광, 경남 거창 등 5

개 지역에서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전국 165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지역단위 농촌융복

합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지역 특산품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농경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크고 아름다운 나리꽃 생육 상황 조사 16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온실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나리 품종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흔히 백합으로 알려진 나리는 꽃이 크고 아름다워 꽃다발이나 부케 등의 주재료로 이용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한전 전북본부, 올 전력설비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송전선로와 변전소, 배전선로, 대형전선설현장에 이르는 약 700여 개소의 전력설비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력설비에 대한 심층 진단이 시행되고, 화재취약시설과 이중이용시설 공급선로 등 핵심 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 드론 등 과학화장비와 기술을 적용한 특별 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력설비 점검으로 정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전력설비 복구체제를 구축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 배움터로 '각광'

aT, 현장교육기관 운영자 24일까지 모집... 우수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직거래 참여 주체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현장교육기관' 운영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기관 모집은 우수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특히 로컬푸드직매장 뿐 아니라 직거래사업장 사업자도 교육운영자로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총 3개소 내외의 기관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재비, 홍보비 등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아 현장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직거래사업장 운영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관련 실무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실무교육은 로컬푸드의 이해 등 기초과정부터 사업장 설치·운영, 기획생산, 가공품 개발 등 심화과정까지 단계별 교육으로 이뤄지며, 상품포장, 출하·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순천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장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총 29개 교육과정에 43개 직거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60명의 교육생이 참가했다. /김윤상 기자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지난해 91%의 교육참석자들이 해당 실무교육이 아주 유익했다는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며 "우수 사업장의 운영노하우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이라고 말했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와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aT 푸드플랫폼(061-931-1093)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익산농협, 대학생 조합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은 지난 16일 대학생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및 가족이 참석할 수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지침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맞춰 간소하게 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했다.

1991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 익산농협은 2019년 까지 총 3,122명에게 총 22억 3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기존 수혜자들은 3년간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조합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익산농협 김병욱 조합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강의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며 격려하고 "익산농협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전국 최고의 농협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영희 기자

'재즈의 매력 속으로' JB문화공간서 정운수씨 초청 '올댓재즈' 강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12일 문화살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운수씨의 '올댓재즈, 재즈의 매력에 빠지다' 세 번째 강좌가 열렸다.

정운수 강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문화사회학을 전공했으며, 축구칼럼니스트이자 문화평론가로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시네21, 월간음악 등에 오랫동안 클래식과 재즈를 포함한 인문예술전반에 걸쳐 비평과 칼럼을 써왔다.

성공회대학교 및 여러 기관에서 재즈와 클래식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무엇보다 재즈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했다. 동시에 재즈는 미국문화, 나아가 현대 문화에 대한 생생하고 변화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재즈음악에 대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재즈를 통해 현대문화와 그 문화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정운수 강사는 "재즈는 한평생 집중해 들을 가치가 있는 전변문화의 경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12일 문화살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운수씨의 '올댓재즈, 재즈의 매력에 빠지다' 세 번째 강좌가 열렸다.

로운 음악문화"라며, 특유의 흥미진진한 화법과 인문사회문화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연 내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즈의 탄생과 스윙재즈', '모던재즈와 그 거장들', '세계음악으로의 만남과 확장', '해설이 있는 재즈콘서트', '퓨전 크로스오버 그리고 하이브리드', '21세기의 재즈, 그 다채로운 풍경들'을 주제로 총 여섯 번으로 계획된 이번 재즈강좌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즈연주자들의 명반을 통해 연주실황을 감상하면서 시대의 흐름이 생생하게 반영된 경이로운 음악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김경진 부장은

"JB문화공간은 도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나눔 공간이며 클래식 강연부터 함께 즐기는 투포털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따뜻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과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www.jbartcenter.o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063-288-779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한 이용자에게 동호회 대관시 우대 혜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각 견연, 공연에 무료 및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JB카드 5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한국국도정보공사가 전북도와 손잡고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마련이 어려운 도내 가정을 위해 무료로 PC를 제공한다.

컴퓨터 없는 가정 돕기

LX, 전북도와 '사랑의 그린PC 지원 협약' 체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는 한국국도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전북도와 손잡고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마련이 어려운 도내 가정을 위해 무료로 PC를 제공한다.

LX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사랑의 그린PC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도와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일정량의 정보통신매체를 무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마련이 어려운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와 온라인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LX는 협약서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재할용 정보통신매체 200대 이상을 도에 무료 기증하며, 올해는 재할용 PC 200대와 중고 모니터 290대, 1,0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어 설치비용 등을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통신기기는 전북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PC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공정하게 선정한 후 우선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지난해부터 사업비감소와 보급물량 축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LX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따라 상호협력 하에 향후 3년간 충분한 보급물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여러 여건으로 컴퓨터가 부족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상생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PU알림 수신 동의하고 경품받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 모바일창구 앱 통해 참여 가능한 'Push ON! Lucky ON' 이벤트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농협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한 'Push ON! Lucky ON' 이벤트를 29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상품출시, 이벤트, 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Push알림 수신동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매일 150명씩 총 3,000명에게 비타500 모바일쿠폰을 증정하고,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CU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추가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농협생명' 검색 후 농협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설치해 Push알림에 수신동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편, 농협생명 모바일창구 앱은 보이는 ARS, 챗봇서비스, 보험계약대출, 사고보험금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이는 ARS'는 기존 음성 ARS와 달리 고객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음성 ARS 대비 평균 40% 정도 이용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1,000여개의 FAQ에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챗봇인 '코리봇' 또한 모바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의 챗봇인 '코리봇'은 상품 추천, 보험료 납입, 보험사기제보 등 24시간 365일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 시범상가 유치 성공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전국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0년 스마트시범상가 구축' 전국 공모 사업에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가 복합형 시범상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북중기청과 전주시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 및 '해고 없는 도시 전주' 등의 사세를 통해 상호 우호적인 협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성과이다.

그간 전북중기청은 올해 초부터 본부 담당 부서의 업무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별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현황 자료 수집, 타깃상가 상인대표와의 간담회·수요조사, 자체 사업계획서 수립 및 토의·학습 등을 통해 복

합형 시범상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세밀하게 마련했다. 이후 4월 7일 사업공고문을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일부 보완한 후 전주시에 사업 설명과 함께 사업 신청을 제안했으며, 전주시의 지방비 부담 조건 수용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스마트시범상가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VR·AR,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보급해 스마트상점 확충 사업에 맞춰 스마트머러, 서빙·조리를 돕는 로봇 등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기술이 지원될 계획이며, 일반형 시범상가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오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